

THE LAMP

2021년 7월



The Lamp 25호



코로나 19 거리두기 미암교회만의 방법



2021년 6월 미암교회(돈암동 보문로, 담임목사 정 우)는 스리랑카가 식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교인 감사의 달로 정하고 기부컵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44분이 기부컵에 한달 동안 동전을 모아 주셨고, 그 외 이름을 익명으로 하여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총 1,456,000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모금 사업을 주관하신 여전도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 기부컵이 귀하다고 여겨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로 온세계가 끄끖 얼어붙고 마음이 닫혀 어려움을 겪을 때 미암교회의 거리두기 방법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소금같이, 등잔 위의 등불 같이 따듯하고 빛이 났습니다. 미암교회의 사랑으로 식수로 인해 고통 받는 스리랑카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44분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은
커피 기부컵

더램프 스리랑카 식수 사업 소개 동영상 제작



더램프가 지난 6년간 스리랑카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업해온 식수 사업을 정리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스리랑카 북부 지역은 26년간 내전으로 아픔의 상처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건조지역으로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주민들은 오랜전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고, 무분별한 농약과 제초제 등 맹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우물을 마신 사람들이 신장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더램프는 2015년 부터 지난 6년간 식수 사업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내용을 4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제작을 위하여 강석진씨가 재능기부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영상미와 호소력 있는 시나리오로 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잘 만들었다고 반응을 보여 주셔서 더욱 뿌듯합니다. (제작 : 강석진, 동행하는 교회)

2021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제안형 공모사업

케냐 바랑고 카운티(건조지역) 여성농민 경제적 역량강화사업 제안서



케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지역에서 식수부족과 식수를 구해야 하는 여성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케냐 건조지역의 여성농민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2021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제안형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램프는 식수사업 전문단체로서의 현지에서 필요한 식수시설을 설치해주어 식수를 구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현지 여성농민들에게 여성농민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 퇴비사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된다면, 50개의 여성농민조직(약 1000명의 여성농민)과 9개의 식수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15,000명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대표 이영철 고문 이시영

이사 김달호, 김성민, 조영훈, 김철민, 이형우, 이홍규, 최도식, 구자범, 유명호, 성낙승

함께하는 단체 대전제일교회, 신철원중앙교회, 한울교회, 안동교회, 동행하는교회, 고능교회, 뉴라이프교회, (주)유니락, (주)엠에스전기, 주작나무한의원, 위코스메틱스, JBN보험중개